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해법 ‘표류’

법무부, 올 상반기 중 개선 계획했지만 속도 못내도, 투자이민 기준금액 등 조정 개선안 제출 방침
투자 기준금액·의무 거주기간 등 현실 맞게 조정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중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으나 용역시행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제주자치도가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해 법무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의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공익사업투자이민제와 결합하는 방안,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 강화, 투자자와 함께 체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관련 체류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선 방안 논의는 중단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여

건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년에 한번 국내에 입국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관광수입 효과를 고려해 투자자들의 의무 거주기간을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영주권(F5) 외국인인 4주 국내에 체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IT·BT 등 제주 주력산업 분야를 현재 운영중인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익형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펀드에 투자할 경우 바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제주에서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5억원)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다. 이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11월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초겨울에 만나는 남국의 한라산 초겨울 추위가 엄습한 5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유재밭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를 통해 지난해까지 1909건·1조 2586억원의 투자유지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투자금액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상향을 했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라는 도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이달 중 개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2023년 4월 30일 이전에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2023 한라일보 신춘문에 공모

새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2023 한라일보 신춘문에 작품을 공모합니다. 한라일보는 창간 이래 해마다 신춘문예를 공모해 역량 있는 신인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도 시, 시조, 단편소설 3개 부문에 걸쳐 우리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성장할 ‘문학청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 부문 및 상금

- 시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5편)
- 시조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300만원(5편)
- 단편소설 : 당선작 1편, 상패와 고료 500만원(200자 원고지 기준 80장 내외)

마감 : 2022년 12월 14일(수)까지

(당일 본사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방문 접수 가능)

당선작 발표 : 한라일보 2023년 신년호

보낼곳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3층 경영기획실 신춘문에 담당자

문의 : 064/750-2543

응모 요령

-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 일간지 신춘문예, 일간지 문학상, 종합문예지 당선인은 기성 문인으로 간주해 응모가 불가합니다.
-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글자크기 11~12포인트)한 뒤 A4용지에 출력해 접수해 주십시오.
- 검봉투에는 ‘신춘문예 응모작’을 표기하고 응모 부문을 적어 주십시오.
- 원고 첫 장과 맨 뒷장에 별도로 응모 부문, 응모 편수, 주소, 성명(필명이면 본명과 함께 기입), 나이, 연락처(집, 휴대전화)를 기재해야 합니다.
- 동일 작품을 다른 매체의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표절한 경우 당선은 취소됩니다. 당선된 작품이라도 주일 표절이나 중대한 부정이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합니다.
- 각 부문 당선작은 1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당선작 고료의 반액을 지급하는 가작을 뽑을 수 있습니다.
- 접수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국서 제주 4·3사건 인권 심포지엄 ‘제주4·3과 인권 그리고 한미동맹’ 주제 8일 개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비극적 사건인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기 위한 ‘제주4·3 인권 심포지엄’이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다. ‘제주4·3과 인권, 그리고 한미동맹’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8일 오후 우드로윌슨센터 6층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 월트 코리아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적 석학들의 발표를 통해 과거 미군정 시기 시작되어 미 군사고문단의 담당하에 벌어졌던 제주4·3에 대해 오늘날 미국의 입장과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학술행사는 수미 테리(Sue Mi

Terry,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국장)를 좌장으로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전 주한 미국대사), 이성운 교수(미 터프츠대 교수), 양수연(월트 코리아 대표, 재미 제주4·3기념사업회·유족회), 양조준(4·3중앙위원), 존 메릴(John Merrill, 전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실장), 허호준(한겨레 기자), 찰스 클라우스(Charles Kraus, 우드로윌슨센터 부국장)가 맡는다.

한·미 주요 인사들의 라운드테이블은 문정인(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수미 테리를 좌장으로 프랭크 자누치(Frank Jannuzzi), 펠림 키네(Phelim Kine), 존 허드슨(John Hudson)과 고희범(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4·3유족회장), 양조준 위원의 참여로 토론이 진행된다.

고대로그자

중근당건강 헬스벨스토리

우리 동네 건강 스토리, 헬스벨스토리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우리가족 건강 컨설팅까지

단한 성장판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성장판이 열려있는 지금!

키, 클 수 있을 때 키워주세요.

우리아이 키성장 프로젝트

찾아오시는 길

제주시 오라로2. 1층 건물 앞 주차장 이용

종근당건강 헬스벨스토리 제주오라점

관절 & 연골 건강

혈행 콜레스테롤 혈압 개선

침향 함유 프리미엄 홍삼

눈노화와 피로 개선 더블케어

근육건강 고단백질 음료

제주오라점 TEL. 711-7900 H.P. 010-6609-0124